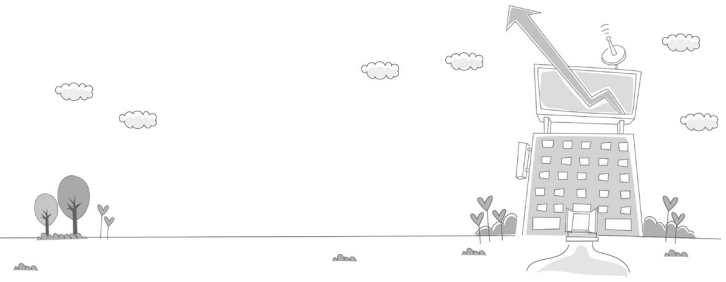


기관소식



농림축산식품부

영연방 3국 FTA 추진에 따른
농업분야 경쟁력 강화대책 마련

1. 추진경과 및 피해 영향분석

9.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한·영연방 3개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과의 FTA 추진에 따른 농업분야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통상여건 및 국내 농축산업에 미칠 영향이 유사한 호주 및 캐나다, 뉴질랜드와의 FTA가 비슷한 시기에 추진됨에 따라 3개국을 포괄하여 피해산업에 대한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하되, 금번에는 협상이 완료되어 영향분석 결과가 도출된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 대책을 중심으로 하고, 한·뉴질랜드 FTA는 협상 종료 후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호주) '13.12.4일 타결, '14.4.8일 정식서명, (한·캐나다) '14.3.11일 타결, '14.6.12일 가서명, (한·뉴질랜드) 8.4~8일 8차 협상

그간 농식품부는 '13.12월 및 '14.3월에 호주·캐나다와의 FTA가 타결됨에 따라, 연초부터 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해 영향분석 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축산업 등 피해 예상분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진행하였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가 '15년에 발효된다고 가정 시 축산업 및 재배업 일부품목에서 향후 15년간('15~'29) 총 21,329억원(호 16,523, 캐 4,806)의 생산액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 축산업 : 총 17,573억 원(한육우 10,109, 돼지 5,139, 가금 2,121, 젖소 197 등)

* 재배업 : 총 3,756억 원(식량작물(보리·감자·콩) 2,351, 원예작물(마늘·양파 등) 1,405)

이에 따라 생산자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피해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농업인등 지원위원회(9.12일) 및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9.12일),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특히 대책 마련과정에서 생산자단체·지자체·전문가 대상 워크숍(3회), 전문가협의회(9회), 생산자단체장 간담회(4회) 등을 개최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대책을 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다고 밝혔다.

2. 기본방향

이번 대책은 영향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피해산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 및 농가 소득안정을 기본 틀로 하되, 기존 한·미 및 한·EU FTA 대책을 보완하고, 추가적인 경쟁력 제고방안 등을 강구

하였다.

축산업 분야는 기존사업을 내실화하는 한편, 한우산업 발전방안 등 축종별로 추가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축산업 전반이 선진화되도록 분뇨·약취 관리 등 친환경 축산 대책을 강화하고 공세적 FTA 활용을 위한 수출 확대방안도 추가하였다.

재배업 분야는 피해품목(보리·콩·감자·양파·마늘)에 대한 수확 후 품질관리 인프라 확충, 수요기반 확대 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책효과가 배가되도록 재정지원과 함께 제도개선 및 세제 지원사항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향후 10년간('15~'24) 총 2.1조원을 추가 지원하는 투융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15년 예산안에 기존계획 대비 2,577억 원 증액시킨 13,918억 원(기존예산 포함)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특히, 투융자계획은 지원규모 과장 우려 등을 고려하여 향후 10년간 추가 지원규모를 15년간 총 피해액 수준과 균형 잡히도록 마련하였다.

* 연평균 1,422억 원의 생산액 감소 피해에 대하여 연평균 2,149억 원 추가 지원하는 구조

3. 국내 보완대책 주요내용

한·영연방 FTA 농업분야 국내 보완대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축산업 분야]

국내 축산업이 FTA 환경 하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내 축산물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 제고와 함께 환경 친화적인 축산 환경 조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1) 우선,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비용절감 및 품질 고급화, 유통구조 개선 및 수급관리 체계화, 성장동력 창출의 5가지 과제를 추진한다.

① 첫째로 축산물 생산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축비·사료비 등의 절감을 위하여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투자자 규모 확대 및 지원규모를 연장(기존 : '15~'20 1.3조원 → 조정 : '14~'24 1.5)하고, 생산자단체 생축장을 활용하여 우량송아지 생산기반을 구축(현행 : 비육용 74개소, 번식용 15 → 개선 : 번식용 89)하는 한편, 농가 사료직거래 자금 지원을 확대('15~'24 : 기존 2조원 → 조정 2.33)하고, 농식품 부산물(쌀겨, 감귤박, 대두박 등)의 사료 활용 지원을 위한 부산물유통센터 설치도 매년 2개소씩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생산성 하락의 주요요인인 가축질병에 대하여는 예방백신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재해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가칭)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15 모델 마련, '16~'17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② 둘째로 수입육과의 차별성 확보를 위하여 한우 암소의 유전능력 향상 및 개량정보 통합제공(포털서비스), 돼지 종축에 대한 국가단위 유전능력 평가체계 구축 등 우량종축의 생산·공급을 가속화하고, 한우 품질 고급화 기술 개발을 위한 '(가칭) 한우특성화사업단'을 운영('15~'19)하며,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하여 '14.12월부터 한우에 이어

돼지에 대하여도 이력제를 전면 시행하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을 확대(일부 표시 → 모든 조리음식 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제도 강화도 추진한다.

*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3개소), 우수 수정란 공급 ('15 : 200마리 분 → '18 이후 : 4,000)

- ③ 셋째로 도축·가공·판매 일관체제 구축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을 위하여, 한우에 대하여는 농협 경제사업활성화자금을 통해 농가-지역축협-농협중앙회간 계열화 체제를 구축하고, 양돈은 역량 있는 품목조합(3개소 내외)에 대해 도축·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우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산지·소비지 가격 연동성 제고를 위하여 영농조합법인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 전문판매점 설치를 신규로 지원('15~'22년간 총 160개소)한다. 아울러 식육즉석판매가공업(13.10월 신설) 조기 정착을 위하여 표준 매뉴얼을 개발('15)하고, 경영 컨설팅을 신규 지원('15~'19 총 500개소)한다.
- ④ 넷째로 효율적 수급관리를 위하여 축종별 수급조절 협의회를 활성화하고, 한우 수급모형, 낙농통계관리시스템, 가금 가격조사 및 생산정보시스템 등 관측 및 통계 정비도 추진한다.
- ⑤ 마지막으로 FTA를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축산물 수출기반 구축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수출 확대를 위하여 유망품목을 중점관리품목(가공품, 열처리제품 등)으로 설정하여 검역조건 완화 및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15년부터 수출업체에 대하여 원료구매자금을 신규로 지원('15년 260억 원)한다. 또

한 산지축산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모델을 정립(시범사업 : '14년 9개소 → '15년 20개소)하고 6차 산업으로 발전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2) 친환경 축산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분뇨 및 약취의 적정처리, 친환경 축산물 공급 활성화의 2가지 과제를 추진한다.

- ① 첫째로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위하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및 에너지화시설 설치를 확대('13 : 98개소·8 → '17 : 150·21)하고 '15년부터 기존 공동자원화시설의 개보수도 신규 지원하며, 약취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된 약취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약취기준 설정 및 적정 관리지침 마련('15)하고, 미생물제제 생산시설 등 약취 저감시설도 '15년부터 신규로 지원한다. 또한 민간전문가 중심의 효율적 분뇨·약취 관리를 위하여 '15년에 축산환경관리원을 설립하고, 분뇨처리 신공법 개발 등을 위한 가축분뇨 자원화 연구기획단도 운영('14~'23)한다.
- ② 둘째로 친환경 축산물 생산·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유기인증 지원한도(2천만 원/호 → 3) 및 지원기간(3년 → 5) 확대, 동물복지 직불금 신규 지원('16) 등 친환경 축산 직불금 지원을 확대하고, 농협·생협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 축산물 유통기반 구축을 위한 전용 판매장 설치 및 운영자금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4. 제도개선 및 세제 지원사항

타 분야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농가 경영부

담 완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세제 지원사항을 발굴·추진한다.

① 우선, 농가에 대한 체감도가 높은 사업 등을 대상으로 3개 사업에 대해 지원금리를 0.5%p 인하(3% → 2.5%)하고, 2개 사업은 인센티브 자금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농가 사료직거래자금,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 도축·가공업체 지원('14: 300억 원 → '15: 500), 가축계열화사업('14: 90억 원 → '15: 150)

② 상속세 감면을 통한 원활한 영농상속 지원을 위하여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하도록 한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영농에 종사하면 되는 것으로 완화한다.('14년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다만, 영농상속 공제한도(현행 5억 원) 증액 및 공제재산 범위(현행 초지·농지만 해당) 확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산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농축산 기자재 5종을 부가세 사후환급 대상에 추가하고('14년 중 특례규정 개정),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에 액비 운송·살포차량을 추가('17, 부정유통방지 대책 마련 후)할 계획이다. 또한,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은 '14년 말에서 '17년 말로 일몰을 연장할 계획이다.('14년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축산 4종) 착유용 라이너, 분만실 깔판, 대인소독기, 방역복, (재배 1종) 양파·마늘망

③ 아울러 단기적인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FTA 피해보전제도(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의 운용기간을 3년 연장*하고, 피해보전비용을 상향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 '15년 발표 가정 시: 직불('11~'21 → '24년까지), 폐

업('11~'16 → '19년까지)

5. 기대효과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한·영연방 FTA 농업분야 국내 보완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되면, 축산물 생산비용이 절감(10년 후 경영비 절감효과 : 한우 9.2%, 양돈 12.1 등)되고, 생산성은 높아지는(양돈 MSY : 17마리/연 → 23, 육계 일당증체량 : 44g → 49 등) 등 축산업 경쟁력이 제고되고 산업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축산물 수출검역 안내서” 발간·배포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 이하 검역본부)는 축산물 수출확대를 위하여 “축산물 수출검역 안내서”를 발간·배포하였다고 밝혔다.

동 안내서는 수출 품목·국가별 수출검역 요건 및 절차 등 최신 정보를 수록하여 관련업체 및 현장 검역관들이 수출업무 추진 시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 하였다.

특히, 동 안내서에는 현재 수출 가능 품목·국가

외에도 현재 검역협상을 추진 중인 품목 등에 대한 진행상황도 포함하고 있어 향후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검역본부는 국내산 축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동 안내서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함은 물론 홈페이지(<http://eminwon.qia.go.kr/수출검역정보>)에도 동 자료를 등재하여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제공을 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삼성·LG전자와 업무협약 체결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냉장고 개발을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통해 제공되는 식품안전정보를 국내 기업들이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삼성전자(부사장 김상학), LG전자(부사장 박영일)와 함께 9월 16일 서울지방식약청(서울 목동 소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여러 부처와 지자체에 분산되어 있는 식품안전정보를 통합·공유하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사업 중 대국민 활용의 일환으로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식품안전정보를 이용하여 스마트냉장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 여러 부처(12개) 및 지자체(서울시스템)에 분산되어 있는 식품안전정

보를 안행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연계·통합하여 범정부적으로 공유·활용하고, 대국민에게 개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기회 등을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 **스마트냉장고** : 냉장고에 카메라와 LCD스크린 등을 장착한 후, 인터넷을 통해 ①식생활 정보 정보조회 ②실시간 식재료 주문 ③자가 절전 ④보관기한 관리 ⑤냉장고 상태 확인 등 최신 정보기술을 적용한 냉장고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스마트냉장고 개발을 위한 식품안전정보 제공 ▲스마트냉장고 개발에 필요한 관계 유지 등이다.

이번 체결식은 장병원 식약처차장과 LG전자 박영일 부사장, 삼성전자 김상학 부사장 등 12명이 참석했으며, 향후 공동으로 실무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식약처는 스마트냉장고 개발을 통해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서 취합된 식품안전정보가 국민의 식품 구매, 관리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통해 제공되는 식품안전정보는 모든 기업에게 열려있어 업계 연구·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농촌진흥청

아시아 지역 가축유전자원사업
본격 시동

아시아 지역 가축유전자원 활용을 위해 아시아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이하 AFACI : Asian Food

and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11 개 회원 나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9월 16일부터 20일 까지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가축유전자원 활용 과 생산성 제고 사업' 1년차 평가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AFACI 아시아 지역 과제에 따라 1년 동안 가축유전자원 사업 추진 결과와 예산 활용, 보완점,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내년도 계획을 수립했다.

각 나라의 전문가 24명은 방글라데시의 가축유전자원 관리 현황을 둘러보고 정보를 교류하는 한편, 다음 연례 평가회 개최국을 선정했다.

아시아 지역 가축유전자원(AnGR) 과제는 지난해부터 2016년 4월까지 3년 간 11개 회원국이 함께 수행하고 있다.

회원 나라 간의 유전자원 정보 교환과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가축 생산성을 높이고 축산 문제의 공동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촌진흥청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조영무 장장은 "아시아 지역은 동물유전자원의 다양성에 비해 유전적 특성 분석과 목록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다."라며, "이번 과제를 통해 회원 나라별 가축유전자원 탐색과 개발은 물론, 목록화된 자원의 정보 공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축종별 사양 방법 등 대응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라고 전했다.

한편, 아시아농식품기술협의체(AFACI)는 아시아 지역 농업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09년 출범한 협의체이며, 우리나라 주도로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라오스, 몽골, 네팔,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모두 11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평원 블로그 200만 명 방문 돌파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허영)은 2011년 11월 축산물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 운영하고 있는 축평원 공식 블로그(blog.naver.com/ekapepia)가 2014년 9월 13일 방문객 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를 기념하여 축평원 블로그 200만 번째 방문자인 방운식(아이디 : rkdfp0330)씨에게 경품(온라인 상품권)을 증정하고 '방문의견 댓글' 이벤트에 의견을 남긴 방문자 중 추첨을 통해 35명에게 경품을 증정하였다. 방운식씨는 축산에 대해 알고자 방문했는데 "200만 번째 방문자가 되어 영광이며 정말 기뻐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방문의견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여 축평원 블로그 및 eKAPEPIA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꽃** 방문자는 함께 숨 쉬고 즐거움을 나누고 대화하며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또 하나의 즐거운 엔돌핀이며, 마치 신상아이템을 득템한 것 같은 짜릿함을 느낀다는 의견이었다. 또 다른 방문자인 lee*****는 일반국민이 축산에 대해 궁금해 하는 정보를 발굴, 이를 알기 쉽게 설명하여 축산에 대한 재미있는 상식을 알리는 노력과 열정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으며, 꾸준히 정보공유를 부탁했다.

허영 원장은 "앞으로도 일반국민의 관심도 높은 축산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콘텐츠 개발 및 타 관련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확대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T,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보완 대책에 대한 국민적 참여를 유도하여 정책성과에 대한 체감도 및 이해도를 높이고자 체험수기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체험수기 공모전은 로컬푸드 직매장, 장터, 꾸러미,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등을 경험해본 사람은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공모 주제는 ▲직거래(로컬푸드 직매장, 장터, 꾸러미 등) 분야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분야 가운데 선택하여 작성하면 된다.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은 일반 소비자, 대학생, 유관기관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도매시장 효율화, 직거래 활성화, 농산물 수급 안정화, 생산자단체 계열화 등에 대한 우수 아이디어를 1차 제안서 평가 및 2차 PT평가를 통해 선정한다.

시상은 공모전 별로 최우수상 1명에게 200만원, 우수상 2명에게 각 100만원, 장려상 3명에게 각 50만원이 지급되며 접수마감은 11월 21일(금)까지이다. 신청요령 및 관련 양식은 aT 홈페이지(www.at.or.kr)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유통기획팀(02-6300-1587)으로 연락하면 된다.

aT 관계자는 이번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보완대책 공모전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농산물 유통 정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함으로써 농산물 직거래 확산이 더욱 촉진되는 계기가 되길 희

망한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국내산 축산물 소비촉진
가두캠페인 전개



농협은 9월 4일 오후 1시부터 서울역에서 이기수 축산경제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내산 축산물 소비촉진 및 안전성 홍보 가두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행사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국내산 축산물 소비촉진을 통해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우리 한우·한돈 등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확대 붐 조성을 위해 실시된 것이다.

또한, 귀성객을 대상으로 가축질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협조와 함께 고향가시는 길에 드실 수 있도록 간식용 구운 계란도 나눠주었다.

이기수 대표이사는 “추석 명절 전 국민이 우리 한우·한돈 등 국내산 축산물 소비촉진에 동참해 축산농가에게 큰 힘이 되어 주길 바라며, 농협도 오천만 국민이 국내산 축산물로 정을 나누고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고품질의 안전한 제품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